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
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굽주린 이들을 좋은 것
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
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
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루카 1,48-49)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미사해설 : 이 창섭

제1독서 : 최 일환

제2독서 : 최 금연

신자기도 : 이 중숙

예물봉헌 : 이상빈 가족

성 가

입당 : 자모신 마리아 (성가 238)

봉헌 : 복되신 마리아 (성가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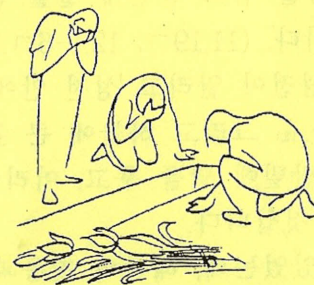
성체 : 천사의 양식 (성가 187)

파견 : 성모 승천 (성가 259)

성모승천 대축일

2011.8.15

복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Those who sleep in death will also be raised. (15:20)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성모 승천 대축일

ㄹ 입당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대영광송>

ㄹ 제1독서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1,19ㄱ; 12,1-6ㄱ,10ㄱㄴ)

19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 궤가 나타났습니다. 12,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
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2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
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4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
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
졌습니다. 6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10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
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45(44),10.11.12.16(● 10ㄴ))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의 사랑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3.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4.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ㄹ 제2독서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20-27ㄱ)

형제 여러분, 20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
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파멸
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ㄹ 복 음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9-56)

39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